

문화광장



양 건
건축학 박사·제주 공공건축가

2016년은 미술대전에서 제주건축대전이 분리 운영된 원년으로서, 이는 제주 문화예술계 내에서 건축의 독자성을 획득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건축대전의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는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해외건축가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하고 참가자격을 확대하는 국제화의 전략을 세웠다. 첫 번째 심사위원으로 초청된 일본건축가 '나가 토시하루'는 '지역사회권주의'라는 의미 있는 책자를 제주건축계에 소개한다. 한국에는 '마음을 연결하는 집'으로 출판됐는데, 가족개념이 무너

제주형 주거복지 모델, 이제는 내놓을 때다!

진 현대사회에서 '거주한다는 것'의 새로운 정의와 일반건축가들의 연구 제안을 담고 있는 책이었다. 이 책의 근저에는, 거주와 인간의 존재를 연계하는 '하이데거'를 인용하지는 않지만, '주거는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인본적 공간'이란 주장이 깔려있다. 결국 주거를 논할 때 그 사유의 출발은 '거주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주 주거복지 정책의 시도는 어떠한가? 각종 정책에 의한 사업의 성과는 시행기관인 제주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이 어느 지역에 몇 세대를 공급했다는 홍보내용 일색이다. 입주자들의 삶과 연관된 주거형식이나 삶의 질에 대한 평가와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제주 주거복지에 관한 컨트롤 타워의 철학 부재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 정책의 사업구조를 들여다보

면, 공공적 디벨로퍼인 제주개발공사 등이 사업시행사이고, 주거복지센터는 진보한 형태의 부동산 중개인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을 기획하고 위탁·감독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형 주거복지의 철학을 세우고, 개념을 정립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주거복지를 주제로 행해지는 각종 심포지엄마다 '제주형 주거복지모델 수립'을 슬로건처럼 선언하지만, 그 후속의 조치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갑갑한 현상에 수년 전 소개받은 '지역사회권주의'를 다시 꺼내보게 된다. 연구진은 1인 1가구의 증가로 가족이 해체된 현대사회의 대안으로써, 개방성의 주거형식에 의한 지역공동체와 그에 의해 운용되는 작은 경제단위로서 '지역사회권'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우리나라의 '판교 하우스' 프로젝트에서 일본의 건축가 '야마모토 리

켄'에 의해 실현된다. 기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완전히 전환하는 주거형식으로 초기 입주자들의 불만이 대단했으나, 최근 현장을 다시 찾은 건축가에게 입주자들은 환영과 감사의 말을 전한다. 지역사회권의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알게 됐다고... 이웃나라 건축가들의 연구와 수도권 주거복지 정책을 선언에 그치거나, 이름만 제주형인 정책에서 탈피하는 해안이 발휘돼야 할 때임을 실감한다. 언제까지 몇 세대 공급이라는 양적 목표에만 매몰돼 있을 것인가! 제주형의 주거복지 모델 연구는 '안락거리 살림집'이라는 제주 고유의 주거문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더불어 마땅한 연구조직이 없는 현 상황에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건축가 그룹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제주형 주거복지 모델의 신선한 제안을 이제는 내놓을 때다!

사설

“방역과 일상의 공존”... 범도민적 관심을

코로나19 방역체계로 제주형 사회 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이 7일부터 본격 적용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과태료도 13일부터 부과됩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방역과 일상생활의 공존'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살리기, 사람이동 허용 등의 시너지 효과에 나선 조치입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안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마련,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55개 업종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민간 100인 이상 행사 조건부 가능, 중점·일반관리시설 재정비 및 시설별 맞춤형 방역관리, 공공시

설 제한적 운영 등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개인별, 사업장별 '방역과 생활의 공존' 일상화를 의미합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은 각 개인의 자율·책임과 행정의 철저한 점검을 전제로 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도민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인식을 가진다면 새로운 방역체계를 무색케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 마스크 착용은 이제 당연한 일상입니다. 행정 역시 방역체계에 그치지 말고 미비점 보완과 반복 점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분심 또는 준비못해 과태료를 내는 억울한 사례를 막으려 각종 공공장소에 유·무상 마스크 비치 등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55개 업종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민간 100인 이상 행사 조건부 가능, 중점·일반관리시설 재정비 및 시설별 맞춤형 방역관리, 공공시

열린마당

또 하나의 보험 '119안심콜' 가입하셨나요?



양 은 지
제주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가 있다. 가벼운 상처로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때론 시간을 다루는 응급상황일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처럼 큰 사고를 당했을 때 필요한 정보는 한 두 가지 아니다. 지병은 있는지, 어떤 약을 복용중인지, 보호자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의식이 없는 환자인 경우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알 도리가 없는 정보들이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거나 홀로 사는 고령의 어르신처럼 응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전에 환자의 병력, 복용중인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다양

한 정보를 등록해 뒀다가 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줘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이 있어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은 본인수록 관심이 배가 되는 서비스일 것이다. 심뇌혈관 질환 뿐 아니라 가족 중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집에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계신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등록이 가능하므로 미리 가입해 놓으면 응급상황에서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혹시 돈을 내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오해하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가입하기 바란다. 국민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119 무료 맞춤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119안심콜서비스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검색창에 '안심콜'을 입력해 119안심콜센터 홈페이지(http://u119.nfa.go.kr)에 접속 후 본인이 직접 할거나 대리등록을 하면 된다. 여의치 않을 경우 가까운 119센터로 요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고유정 사건 잘못된 초기 수사 바로잡아야”

원 지사 제주 그린뉴딜 홍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전국 홍보에 나서 주목.
원 지사는 9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만나 “은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 세계 각국이 파리기후 협약을 채택하고 있다. 에너지저장·탄소 중립·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에 지자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
이에 이용섭 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 이때윤지

당시 수사를 담당한 청주상당경찰서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며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주장.
친부 측은 진정서에서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 잘못된 초기 수사 결과를 바로 잡아 달라”고 촉구. 이상민기자
급식 식자재 안정성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집중 점검을 펼치고 있어 눈길.
제주지역본부는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등록된 2년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보관상태, 작업장 및 작업자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광주지방식약청, 제주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등과 상·하반기 합동점검도 실시.
강원선 본부장은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점언. 고대모기자

돌봄 필요한 학생·학부모 불편 우려된다

제주지역 돌봄전담사들이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들은 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시·군·구 돌봄 철해를 주장하며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갔다.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전담사들이 앞으로 2차 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6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파업투쟁대회를 열었습니다. 제주지역 돌봄전담사 223명 가운데 이날 파업에는 109명이 동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뤄진 이날 파업은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으로 인해 촉발됐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아닌 각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노

조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도 돌봄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된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공적 돌봄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돌봄 아이들에게도 차별을 주는 시간제 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강력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돌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돌봄의 주체를 학교로 할지 아니면 지자체로 할지 등을 놓고 돌봄전담사와 교육당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돌봄전담사 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관련 단체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만큼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돌봄 파업이 반복될 경우 결국 돌봄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 별세하신 한림로타리클럽 자운 이산형 부회장님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애도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드리움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 고춘자
아들 이창홍 며느리 정애자
창용
승윤
국제로타리 3662지구 한림로타리클럽
회장 황성윤 외 회원일동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부인 김해김씨 영자(향년 72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10일
남편 박찬식
아들 박종필 며느리 박영선
종립
딸 박순금 사위 김기홍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0고정164 재물손괴
피고인 김지애
위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9.
판사 서근찬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감골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